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공감력의 조절효과

이창식¹, 장하영^{2*}

¹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²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Moderating Effect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of Adolescents

Chang Seek Lee¹, Ha Young Jang^{2*}

¹Dep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Hanseo University,

²Dept. of Lifelong Education,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사이에서 공감력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 B군에서 중, 고등학교 청소년 542명을 표집,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평균비교분석, 상관분석 및 조절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감력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공격성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공격성은 자아존중감과 공감력 모두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사이에서 공감력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은 그들의 환경과 성별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추가적으로 전국단위 샘플링을 통한 연구, 여학생의 대상으로 한 공감력 관련 변인 연구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공격성, 공감력, 청소년, 학교 폭력,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empathy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and aggression. For this study, 542 adolescents were surveyed in B county of Gyeongsangbukdo in Korea. Data were analysed using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mean comparis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moderation.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adolescents' empath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school level. But adolescents' aggression did not show any differences. Second, adolescents' agg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ir self-esteem and empathy. Third, As a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ale students showed a moderating effect of empathy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but the female students did not showed it.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programs for lowering aggressiveness of adolescents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ir environment and gender. In addition, the research through nationwide sampling, the research on the empathy related to the female students, and the 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addressed.

Key Words : Self-esteem, Aggression, Empathy, Adolescent, School violence, Moder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Ha Young Jang(besof@hanmail.net)

Received November 3,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December 18,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1. 서론

최근 청소년들의 폭력 가해 행위는 질적, 양적 측면 모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저연령화를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이러한 폭력의 피해 학생들은 정서적,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부적응, 자살시도, 나아가서는 폭력 가해, 범죄행위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 심각성은 크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은 10.1%, 고등학생은 4.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세계 주요 선진국 중 9위로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1]. 따라서 학교 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전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폭력 가해 행위에 관한 연구가 근래 들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중 공격성이 중요한 예측 인자임을 밝혀낸 연구가 다수 발견된다[2].

Bandura[3]는 공격성을 공격 의도와 상관없이 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위 그 자체로 정의하였다. 반면, Aronson[4]은 공격 그 행위 자체보다는 대상을 해치려는 의도를 갖는 행동이라 정의함으로써 의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공격성은 의도와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lweus(1993)의 공격성 정의를 토대로 타인이나 대물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언어적, 물리적으로 표출하는 행동과 분노를 표현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5].

한편, 공격성의 유형으로는 크게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6], 신체적 공격성이란 상대에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와 대물 등을 손상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언어적 공격성이란 상대에게 심리적 또는 사회적 폐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말한다[6].

이러한 공격성에 대한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 요인은 분노 통제력, 부정적 자아 개념,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 적응 부족 등을 포함하고, 외적 요인은 양육태도, 또래관계, 학교 적응을 포함한다[7]. 이 중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racy 등[8]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하여 외부 환경을 탓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분노,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보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희

옥[9]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에게 적절치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적대감을 품게 되고 이는 다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역으로, 자존감이 강할수록 사회에 대한 적응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져 공격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0].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부적 영향,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지게 되며 이는 공격성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를 밝혔던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심리적 변수로 자기에, 인지적 정서조절, 성취목표 등이 밝혀졌다[11-13]. 하지만 공감력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던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력의 조절 효과에 주목하였다.

Rogers[14]는 공감력을 타인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단일 개념이 아닌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인지적 공감이란 타인의 관점을 취해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정서적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5]. 하지만 정서적 공감이 타인에 대해 감정이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따라서 정서적 공감만이 공격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16]. 이러한 점과 Gagan(1983)의 정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감력을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17].

한편, 성별에 따라 공감력은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보다 자기희생적이고 양육적인 역할로 인하여 이타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공감력이 더 높게 된다[28]. 또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공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반응이 민감한 청소년들은 공격적 행위를 더 적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리고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정서적 공감 능력은 낮았지만 인지적 공감 능력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따라서 공감력은 공격성을 완화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며 특히, 정서적 공감 능력이 인지적 공감 능력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공감력을 매개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자아존중감은 성장하게 된다[20]. 박혜원[21]의 연구에서도 공감 훈

련으로 공감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자아존중감도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감력과 자아존중감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상술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자아존중감과 공감력은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존중감과 공감력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감력은 긍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는 심한 고통,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개인에게 주목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서적 반응이다[22]. 따라서 공감력을 느낄 경우 그 대상에 대하여 정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23]. 그러므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력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공격성의 예측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 공감력 등 심리적 변수의 직접적 영향력과 일부 매개효과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조절효과를 파악했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성별에 따른 심리적 영향 관계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비교를 시도했던 연구도 극소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력의 조절효과를 성별에 따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첫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감력, 공격성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공감력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B군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7개교를 편의 표집한 후 직접 방문하여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공란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542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295명(54.5%), 여학생이 246명(45.5%)로 남학생이 많았고, 학교급 분포는 중학생이 271명(50.2%)이고 고등학생이 269명(49.8%)으로 유사

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이들의 연령 범위는 13세~19세였고, 평균 연령은 16.2세(SD=1.64)이었다.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양부모’가 446명(82.9%)이었고 ‘편부모’가 50명(9.3%), ‘조부모, 시설 및 기타’가 42명(7.8%)로 ‘양부모’ 형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끝으로 읍/면지역 분포를 보면 ‘읍지역’이 183명(33.8%), ‘면지역’이 359명(66.2%)로 읍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2 연구도구

2.2.1 자아존중감

Rosenberg[24]의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5문항, 부정적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2 이다.

2.2.2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태영[25]이 개발한 Big 5 성격검사 중 정서적 안정성 검사의 공격성에 해당하는 11문항을 추출하였고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8 이다.

2.2.3 공감력

Jolliffe와 Farrington[26]이 개발한 Basic Empathy Scale(BES)를 강정희[27]가 변안한 척도 중 8문항을 추출하였고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4문항, 부정적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력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57 이다.

2.2.4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지역, 학교급, 가족 형태를 조사하였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설문지를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공격성, 공감력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이검정을 실시하였고 Duncan/Dunnett T3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고,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공감력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조절회귀분석 [28]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력, 공격성의 차이 검증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력과 공격성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공감력은 차이를 보였으나($t=-6.587, p<.001$) 공격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546, p>.05$), 학교급에 따라서도 공감력은 차이를 보였으나($t=-2.703, p<.01$) 공격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934, p>.05$). 한편,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공감력($F=.659, p>.05$)과 공격성($F=.076, p>.05$)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지역에 따라서도 공감력($t=-.420, p>.05$)과 공격성($t=-1.650, p>.05$)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2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주요 변인 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과 공감력은 정적 상관관계($r=.193, p<.01$)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부적 상관관계($r=-.263, p<.01$)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감력과 공격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r=.011, p>.05$)

상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Variables	1	2	3
1. Self-esteem	1		
2. Empathy	.193**	1	
3. Aggression	-.263**	.011	1

** $p<.01$

3.3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공감력의 조절효과

3.3.1 남학생의 공감력 조절효과

남학생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beta=-.192, p<.01$),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공감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28]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공감력이 낮은 경우보다는 높은 경우가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저하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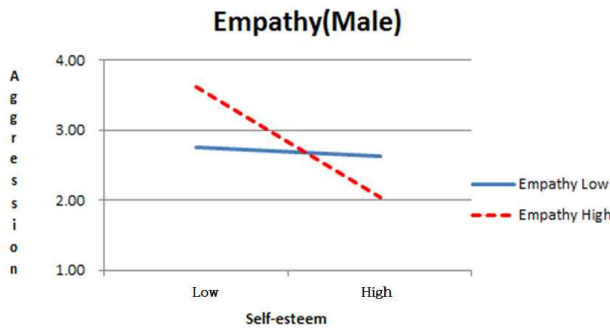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Male)

	R	R ²	ΔR^2	β	t
Self-esteem	.300	.090	.090	-.300	-5.308***
Self-esteem Empathy	.302	.091	.001	-.305 .037	-5.340*** .645
Self-esteem Empathy				-.348	-6.051***
Self-esteem×E mpathy	.355	.126	.035	.053 -.192	.940 -3.370**

<Table 1> Differences in empathy and agg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Empathy			Aggression		
		N	Mean(SD)	t, F, Duncan	N	Mean(SD)	t, F, Duncan
Gender	Male	292	3.25(.54)	-6.587**	294	2.73(.72)	.546
	Female	242	3.56(.53)		245	2.69(.66)	
School level	Middle school	269	3.33(.59)	-2.703**	271	2.74(.70)	.934
	High school	264	3.46(.51)		267	2.68(.68)	
Family form	Intact parent	441	3.38(.56)	.659	443	2.14(.58)	.076
	Single parent	49	3.47(.52)		50	2.13(.65)	
	Grandparent etc.	41	3.41(.55)		42	2.11(.63)	
Region	Town	183	3.37(.58)	-.420	183	2.64(.63)	-1.650
	Rural	352	3.40(.54)		368	2.75(.72)	

** $p<.01$



[Fig. 1] Moderating effect of empathy

3.3.2 여학생의 공감력 조절효과

여학생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beta=.055, p>.05$), 따라서 여학생인 경우 공감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Female)

	R	R ²	ΔR^2	β	t
Self-esteem	.202	.041	.041	-.202	-3.160**
Self-esteem Empathy	.235	.055	.014	-.244 .127	-3.623*** 1.888
Self-esteem Empathy	.240	.058	.003	-.265 .134	-3.670*** 1.977*
Self-esteem X Empathy				.055	.80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6.587, p<.001$).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공감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29,30]. 이러한 차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자기 희생적이고 양육적이라는 이타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31]. 즉, 상대적으로 높은 이타심을 소유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감력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격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는데($t=.546, p>.0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결과와 그 반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모두 있다[32,33]. 이는 청소년들의 심리 변수와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외부로 표출되는 공격성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격성은 다른 요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처한 개인적, 가정적, 학교에서의 경험에 따라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공격성 조절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공감력은 정적 상관관계($r=.193, p<.01$),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부적 상관관계($r=-.263, p<.01$)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공감력과 공격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011, p>.05$).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공감력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공감력 향상 교육은 자아존중감과 공감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공감력은 자아존중감에 작용하여 그 효과를 나타낼 때 교육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남학생인 경우 공감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beta=-.192, p<.01$) 여학생인 경우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beta=.055, p>.05$). 이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공격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공감력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남학생의 공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공감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공격성을 낮추어 주는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러한 조절효과의 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심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데[34,35], 공격성에 작용하는 통제 요인이 성별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북도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청소년들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에는 전국적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별 비교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력의 관계에서 남학생인 경우 공감력의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나 여학생은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인 경우 다른 조절변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최근 학교폭력 수준이 심각해지고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REFERENCES

- [1] C. S. Lee, & H. Y. Jang,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pp.37-44, 2016.
- [2] G. B. Doh,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factors in ecology system and aggression affecting school violence",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0, No. 2, pp.73-92, 2008.
- [3] A. Bandura,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York: Plenum Press, 1973.
- [4] E. Aronson, *The Social Animal* 11rd ed.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2011.
- [5] J. S. Sim, "The Effect of Customer Aggressiveness on Emotional Exhaus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Casino Employees - Focused on Domestic Casino-",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7.
- [6] Y. Kim, "A Study about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different perceptions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ve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Jeonnam National University, 1999.
- [7] Y. M. Lee, "Aggression reduction program -targeted 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low-wage clas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6.
- [8] J. L. Tracy, & R. W. Robin, "Death of a narcissistic salesman: an integrative model of fragile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Vol. 14, pp.57-62, 2003.
- [9] H. O. Jung,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area of Jeollanam-do",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0, No. 4, pp.443-458, 2003.
- [10] S. G. Park, "The effects of a program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of juvenile delinquents in pris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1, No. 3, pp.1-12, 2007.
- [11] J. S. Cha, & S. M.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7, No. 4, pp.231-258, 2016.
- [12] E. H. Kim, & S. H. Gang,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Aggressiveness - A Case of Convicts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Correction Review*, Vol. 47, No. , pp.119-143, 2010.
- [13] H. S. Lim, & E. J.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vel and Instability of Social Self-Esteem, Social Achievement Goals, Aggression and Social Anxiety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1, No. 1, pp.207-226, 2014.
- [14] H. I. Chung,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empathy on adolescent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2.
- [15]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 No. 4, pp.1-17, 1980.
- [16] C. S. C. Simona, & D. B. Paola, & S. Christina,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Empathy and Social Status on Involvement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Vol. 18, No. 1, pp.140-163, 2009.
- [17] E. S. Song, "The Factors of Empathy for Older Patient in General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 [18] B. J. Kim, & E. J. Lee, & Y. Y. Kim, "Gender Differences in Contribution of Antisocial Personality and Affective Empathy to Psychopath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4, No. 2, pp.219-239, 2009.
- [19] Z. Shechtman,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n aggressive boy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Vol. 24, No. 4, pp.211-222, 2002.
- [20] K. M. Kim, "The effects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mpathic ability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
- [21] H. W. Park, "A study of effects of empathy training on the empathic ability and the self-esteem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2.
- [22] L. Blum, *Compassion*, In A.O. Rorty(ed.), *Explaining emo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23] C. Clark, *Misery and Company: Sympathy in everyday Lif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 [24]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5] T. Y. Han, "Questionnaire of personality traits(Big 5)", Korea Aptitude Institute, 1998.
- [26] D. Jolliffe, & D. P. Farringt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 Adolescence, Vol. 29, No. 4, pp.589-611, 2006.
- [27] J. H. Gang, & E. H. Lee, "Affectionate and Self-Regulating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s' Abilities to Empathize : The Mediating Role of the Big-Five Personal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0, No. 4, pp.71-103, 2009.
- [28] I. S. Aiken, & S. G. West,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Newbury Park, CA: Sage, 1991.
- [29] H. J. Choi, & E. S. Lim, & J. H. You,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ing, Empathy, and Aggression by High School Students", Korean Aca Community Health Nurs, Vol. 24, No. 4, pp.480-487, 2013.
- [30] G. H. Han, & I. H. Yi,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The Moderation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1, No. 4, pp.683-697, 2016.
- [31] Y. K. Kim,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line Donation Behavior to Chariti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32] A. J. Yoo, & Y. J. Han, & N. Y. Choi,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adolescent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0, No. 3, pp.67-87, 2002.
- [33] K. T. Jung,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tress influence to adolescent aggressiveness", Child Education, Vol. 12, No. 2, pp.151-162, 2003.
- [34] I. J. Chung, & J. U. Lee, "The Pathways from Child Abuse and School Bullying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 With a Special Focus on Differences in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 Vol. 23, No. 2, pp.217-242, 2012.
- [35] M. S. Hong, & J. K. Uh, "The Effects of Narcissism, Empathy ability and Self esteem on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on according to the sex",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6, pp.3911-3928, 2013.

이 창 식(Lee, Chang Seek)

[정회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기부

▪ E-Mail : lee1246@hanmail.net

장 하 영(Jang, Ha Young)

[정회원]



- 2015년 8월 : 청운대학교 응용화학 과(이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박사 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기부, 평생교육
- E-Mail : besof@hanmail.net